

“어렵고 무거운 불교 누구도 원치 않는다”

두글자로 깨치는 불교

가섭 지음 | 불광 펴냄 | 1인2천원



불교는 흔히들 어렵다고 한다. 용어때문이다. 누군가는 또 불교는 무겁다고 한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신행체계가 난해해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도 난해한 불교를 단 두글자로 깨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에 책장을 스프링기너와르르 무너졌다. 그리고 절묘하고 재치넘치는 책 제목에 무릎을 쳤다. 이 책에는 불교의 핵심 키워드 49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키워드가 모두 두 글자다. 그래서 책 제목이 <두 글자로 깨치는 불교> 인 것이다. 키워드는 '번뇌' '업보' '합장' '총림' '청규' 등 불자로서 알아야 될 기초적인 교리와 신행 용어들이다. 저자는 이 용어들을 경전에 근거해 풀어주며,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제안까지 덧붙였다. 무엇보다 특히 이 책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20여년간 저자의 수행 생활의 경험의 오롯이가 녹아 있어서다.

가령 저자는 이 책에서 합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 “해인사 행자 시절 합장하는 법을 배웠다. 손바닥을 합쳐 명치 끝에 놓고 열 손가락은 물썰듯 얹는다. 서 있을 때 두 발은 나란히 병족하며, 걸어다닐 땐 차수 하는 위의를 몸으로 체득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경직된 자세지만, 행동을 단속하며 마음까지 단속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합장 자세를 바르게 하면, 그만큼 신심과 환희심이 모아진다는 사실도 경했다. 합장의 바른 자세는 마음의 간절함과 비례한다. 간절한 만큼 손을 모으고, 지극한 만큼 바른 자세가 나온다. 그래서 합장 자세는 그 사람의 종교적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딱딱한 이론의 재배치가 아니라 직접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인 만큼 귀에 쏙쏙 들어온다. 현장감이 느껴지는 생생한 풀이가 불교에 대한 갈증을 시원스레 풀어주고 있다.

몇가지 더 소개한다.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인 '정진'이다. 흔히 '수행정진' '참선정진'이라고 불려 말한다. 그렇다면 어렵듯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집중해서 수행한다는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인 가섭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저자는 “숨이 턱에 받치는 삼부더위에도 각 사찰에서는 하안거와 백중기도로 여름이 없다. 사부대중은 한결같은 정진으로 무더위를 이겨낸다. 재가신도들도 전국 각 도량을 찾아 정진을 통해 부처님 향기에 흠뻑 젖는다. 비오듯 땀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자인 가섭 스님

불교 핵심 키워드 49개 설명 20여년 수행 경험도 전해주 삶의 구체적 실천방향도 제시

로 정진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환희와 감동을 준다. 정진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저자는 ‘무상’도 설명한다. “한시도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 현상을 보며 덧없음을 곱씹는다. 무상하기에 우리의 현실은 생멸을 거듭한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한 현실을 순간순간 잊고 산다. 영원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상에 대한 불경적 없이, 현상적인

모습에 집착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한다.”

이 책은 이렇게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불교 일상용어 안에 현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는 말한다. 불교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절집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만 제대로 풀이봐도 생생한 불교의 날날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수많은 불교입문서가 교리에 치중한 반면, 이 책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절집서 날마다 주고받는 ‘두 글자’의 불교용어에 천착해, 삶과 밀착된 친근한 해설로 안내해 읽기가 부담이 없다. 이 책의 저자 가섭 스님이 가슴 한편에 늘 품어야 하는 화두처럼 대중 눈높이에 맞춰 불교를 쉽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기에 가능하다.

승가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에서,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이끄는 사찰 주지로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함께하는 복지관 관장으로서, 불교정책연구에 정진하는 연구소 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 이력이 활자로서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외에도 불교의 사상적 토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며, 복잡다단한 우리 시대에 불교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삶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향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교리행서의 범주를 넘어선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인간불교는 시대 순응하는 흐름 ... 부처님 전통 가르침에 토대

계·정·혜 인간불교의 근본 가르침

성운 지음 | 조조사 옮김 | 운주사 펴냄 | 1인2천원



‘인간불교’라는 개념은 한국 불교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인간세계에서 태어나고, 수행하며, 깨달음을 이루고,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으므로 사실 불교 자체가 인간세계의 불교라는 관점에서 세상 속에서 불법을 구현하려는 새 불교운동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불교계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사회 전체가 자연스럽게 불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인간불교가 전통적 관점의 계·정·혜 삼학을 시대적, 현실적 요구와 상황에 부응하면서도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누구나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에 의해 주창돼 크게 호응을 얻는 인간불교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불교이자, 현대 인류 사회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불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불교 역시 부처님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토대를 둔다. 즉 중생 고통의 세 요인 탐·진·치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계·정·혜 삼학을

의 목표’는 인격을 완성하고 원만한 보리를 이룸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광산의 중문 청규를 소개하고, 인간불교를 위한 팔정도 ‘인간불교현대의’ 등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제 2부 ‘인간불교의 정착’에서는 성불하기 원하지 않고 깨달음 연기를 바란다는 ‘정의 목표’, 맑고 소박한 생활과 망상분별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정의 수지’, 경계를 따라 바쁘지 않고 자아를 끌어올린다는 ‘정의 오용’, 망상을 없애버리고 신심을 편안케 한다는 ‘정의 이익’,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한다. 특히 정의 수지 부분에서는 비로자나 칠지좌법, 육묘론, 오정심관, 사념주, 구주심, 사료간, 사선팔정, 지관쌍수, 인연관 등 10여 가지의 전통적 선 수행법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면서, 선이 우리의 생활이자 우주자연으로 돌아가는 생활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인간불교의 혜학’에서는 반야연기가 인간지혜의 근본이라는 관점과 지식과 사고로 인간지혜를 해독하는 관점, 이러한 지혜의 응용으로서 생활 속에서 인간지혜를 적용하는 관점, 그리고 모든 생명을 나와 한 몸으로 봄으로써 인간지

해탈 위해선 삼학 닦아야 삼학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 10여 가지 전통 수행법 정리

혜를 원만히 한다는 네 가지 관점에서 혜학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런 삼학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덕쌍수(福德雙修), 해행병중(解行並重)의 근본적인 힘이 되어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불보살의 역사와 탄생배경 소개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불상의 마음

고영석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접해서 귀에 익숙하지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불보살의 이름과 탄생 배경, 그 속에 간직된 이야기, 역사 및 문화적 특징이 일목요

원에서 조명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불보살님들은 저마다의 본원을 지닌다. 여기에 의거해 불교의 다양한 신앙이 전개된다. 여러 가지 기도법과 수행법은 물론 이에 따른 신행문화도 모두 이런 본원에 의해 전개되는데, 이 책에서는 불교의 다양한 신행과 문화를 각각의 불보살님을 통해 조명한다. 더불어 각각의 불보살님에 따른 우리나라의 기도 및 수행도량도 소개해 준다.

이외에도 불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불보살신대제자의 마음도 조명한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십대제자들은 깨달음을 추구하고 중생들을 구제해 나간다. 불교의 대표적 성인으로서 이러한 님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영역 속에서 깨달음의 밝은 빛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불상의 마음이자 정신이다. 불교는 ‘차이’를 조화의 근본으로, 잘나고 못한 ‘차별’이 없는 ‘절대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종교이다. 이러한 불교를 깨달음으로, 수행하는 삶으로 보여준 분들이 바로 불보살신대제자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주일 기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여시아독 수트라

비구 범일 | 김영사 펴냄 | 2만7천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성장한 저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찾아 자연과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였다. 어릴 때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만큼 대학에서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미국 대학원으로 유학해 이론천체물리학(우주론)을 전공했다.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자연과 우주의 진리에 대한 원리적 한계를 이해하였고 비물질적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저자는 영원불변한 진리를 찾아 물질과학의 우주론에서 정신과학의 불교로 탐구방향을 전환하여 출가했다. 승려로서 체계적인 불교공부의 필요성을 느

껴 동국대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물리학의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가 너무나 상이한 국내 불교학의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를 접하면서 한때 외국의 불교학계와 외국승려들과의 교류에 관심을 가졌다.

졸업논문을 쓰며 10년 넘는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한다. 이때 저자는 고(故) 고의진 교수의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아함법상의 체계성 연구(1970)와 이종표 교수의 박사학위논문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1990)를 접하게 됐다. 이 두 논문은 사야한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저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저자는 이 논문들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한 시도를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동안의 모든 활동을 접고 재출가하는 마음으로 지리산 합양의 토굴로 들어가서 불법(佛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경전들을 직접 읽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 결실들이다.

김주일 기자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친구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하지만 '회색지 않고 말하게 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차분히 물어보았더니 교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김상현 (초5)

마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청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청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사실이나 학교·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공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중